

내전이 끝난 스리랑카의 과제

글 · 양금식 yangks1@kdemo.or.kr
박효원 10zzung@hanmail.net

2009년 5월, 스리랑카에서 1983년부터 계속되어 온 민족분쟁이 반정부세력 '타밀 이람 해방의 호랑이(LTTE)'의 지도자 프라바카란의 사망으로 종결되었다. 거리 곳곳에서는 폭죽이 쏟아올려지고 국기가 휘날리며, 축하의 무료 식사가 제공되고 퍼레이드가 개최되는 등 사람들은 27년이나 계속된 내전 종결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약 2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 나라에서 싱할라, 타밀이라는 양대 민족에 무슬림까지 포함하여 민간인 사상자가 10만 명이 넘고, 사망하거나 부상한 병사 역시 10만여 명에 달했던 장기간의 전쟁에 따른 그 동안의 경제적 부담,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도 적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축제 분위기가 엿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념적으로는 싱할라 민족주의에 의해서 추동되었지만, 9·11 이후 전 세계를 휘말려들게 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국제정치의 덕을 보았다. 이러한 와중에서 그들은 '타밀 테러리스트들'과 싸운다는 명분 속에서 싱할라 사회 자체 내의 모든 민주적 목소리들도 분쇄할 수 있었고, 반대로 LTTE는 억압과



클럽보시내를 경비하고 있는 무장군인

잔인한 전쟁에 늘 맞서던 남부의 민주 단체들과 사회 세력을 잃었다.

스리랑카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역시 타밀 분리운동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남아시아와 인도양에서의 작전기지 확보를 필요로 하는 미국, 안전한 석유 운송로를 위한 중국, 국내의 타밀족 문제를 안고 있는

인도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 그리고 UN을 필두로 한 다수의 국제기구들이 정치, 군사, 경제, 인권문제를 이슈로 내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부터 제각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LTTE의 소탕을 위한 무차별폭격으로 인한 민간인의 희생, 비인도적인 난민수용소 등과 관련한 타밀인들의 삶을 위한 호소에 국제사회는 등을 돌려왔다.

전쟁의 가장 비참한 대가는 숫자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전쟁고아들' 과 약 9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

'전쟁 과부들' 이다. 게다가 전쟁뿐만 아니라 2004년에 들이닥친 쓰나미의 내습으로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한 때 최대 백만 명에 달했던 국내피난민 문제도 스리랑카의 미래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제 타밀인은 삼엄한 경비 속에서 거의 완전히 고립되어 살게 되었다. 스리랑카 정부는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마치 강제수용소에 갇혀 지내다시피 살고 있는 내전 피난민 문제를 포함한 타밀족 문제의 해결을 어느 것 하나도 전혀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리랑카가 나서야 할 우선적인 과제는 경제부흥, 국내피난민의 귀환, 민주주의 실현과 종족간 화해를 위한 노력이 될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내전이 끝난 스리랑카 민주주의 발전의 과제를 이해하고 시민사회단체, 지역공동체와의 교류를 위한 기초조사작업의 하나로 현지의 단체들을 방문하는



라자팍사 현 대통령 기념물 앞에서 훈련중인 경찰부대

기회를 마련했다. 이 작업에 참가한 박효원님의 글을 통해 현지의 상황을 소개한다.

‘일반시민’ 이 본 스리랑카 민주주의의

여성은행 누와라엘리아 지점과 보성군 여성농민회가 만난다면?

전체적인 밑그림의 윤곽을 잡은 느낌이다. 문화나 역사의 차이가 있겠지만, 스리랑카 민주주의의 현장은 상당히 불균질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여성은행이나 사르보다야 등 사회경제적 분야의 운동은 그 조직력이 상당히 탄탄했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조직 질서에서 성



Women's Bank Nuwara Eliya 지점 Committee 운영 모습



Janawabodaya 지도부(왼쪽이 Vincent Bulathsinghala 대표, 오른쪽이 설립자인 Fr. Sarath Iddamalgodra)

실하게 반영되고 있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리랑카 여성은행의 운영 방식이었다. '민중을 위한' 이 아니라 '민중에 의한' 이곳의 운영원리다. 다수의 '학출(학생운동출신 노동운동가)'이 노동운동 현장에 투신하던 80년대 계층운동이나 민주화운동 경험이 있는 지식인들이 주도했던 90년대 부문운동과는 맥이 다르다. (물론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도 늘 이렇게 단순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하는 지점과 실패하는 지점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돌아온 답변은 “시끄러운 곳이 성공한다, 모임이 조용한 곳은 잘 안 되더라”는, 다소 예상외의 내용이었다. 서로 자기 입장을 드러내고 싸우는 것이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간다는 얘기다. 타밀족 비중이 높은 누와라엘리아에서도 회원들은 “인종 갈등은 없냐”는 질문에 주저없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아직까지 여성은행은 회계부정 사고가 난 적도 없고 이자 문제로 결손이 생긴 적도 없다고 한다.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상황인데, 그 성공의 비결이 뭘지 정확하

게 알아내지 못했다. 정기적 모임과 훈련을 의무적으로 한다고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여성은행의 강한 결속력이 설명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감안하면 스리랑카의 방식을 곧바로 한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단 한국의 생협이나 여성농민운동과 교류할 방법을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별 연대도 가능할 텐데, 되도록 공통분모를 찾아서 엮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차밭이 많은 누와라엘리아와 보성의 여성들이 교류한다면 프로그램 운영을 서로 배울 뿐 아니라 작물 재배 등 실제적 정보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말 그대로의 '자매 결연'이 되겠다는 상상을 해봤다.

“앞으로 10년은 미래가 없다”

절차적 측면에서 일반 민주주의는 어두웠다. 정치적으로 대통령 장기독재의 조짐이 보였고 언어채택 문제 등 싱할라-타밀의 갈등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네곰보에서 만난 신부님은 실종된 형제나 죽어간 동료 사제

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였다.

단체들은 지역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문제(인권과 개발을 위한 변호사협회)라든지 농촌에 대한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실시(사르보다야)하는 등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 것을 장점으로 강조했다.

물론 내전으로 단체 활동가들이 죽어갔던 역사를 감안하면 ‘중립’이라는 표현이 한국과는 맥락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정치 참여를 지나치게 금기시하는 것은 아닐지 하는 우려가 들었다.

게다가 시민사회의 균열을 엿볼 수 있었다.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 ‘보고서나 써주는 곳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스리랑카 인권보고서를 추후 배송받기로 했는데, 이런 현지 평가도 감안해서 읽어야 할 것이다.)

“이후 10년은 미래가 없다”는 평가도 들을 수 있었다. 구심점이 될 만한 단체나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이후 10년 동안 시민단체 혹은 민중단체의 정치세력화는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는 상태다.

이런 면에서 각 분야에서 대표적 시민단체들이 있고 전국 및 지역별로 시민단체연대체가 있는 한국과 스리랑카가 교류할 큰 길을 뚫는 것은 쉽지 않을 듯 하다. 다만 일정 정도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고 과거사를 정리(그 성과가 충분한지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한 한국의 경험이 스리랑카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Women's Bank 대표 Rupa Manel Silva의 자택

단체 사무실보다는 가정집이 재미있다

사르보다야의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여성은행 장부를 정리하는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국제회의장이 아닌 스리랑카에서밖에 할 수 없는 교류였을 듯 하다. 마지막 날 저녁, 스리랑카 일반 가정을 방문한 것은 그런 면에서 좋았다. 짧았지만 스리랑카의 정서나 가족문화를 살짝 엿볼 수 있었다. 어찌나 정성껏 대해주시는지 미안할 정도였다.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스리랑카 현지가 아닌 한국 내에서의 민주주의 교류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면서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전달하고 스리랑카 민주주의운동을 배울 수는 없을까? 적어도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거나 평범한 스리랑카 사람들의 정치의식을 확인하는 기회는 될 것이다.

글 양금식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사업국
박효원 | 스리랑카 민주주의교류단 참가자